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5: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2:25-29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1-12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1) 진동 변동 요지부동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거꾸로 왕국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어둠 속에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믿음 in '21, 오직 믿음으로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어디론가... Somewhere...



김형균 목사 / Rev. David Kim

요즘 같은 격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꾀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어디든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평소 생각해두었던 것이 있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짐을 싸고 기쁨과 흥분으로 뛰쳐나가시겠지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어디론가'를 생각하시느라 주어진 기회에 정작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긴 주말이 오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를 실천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지요. 이번 주에 찾아온 긴 주말을 맞아 비록 떠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떠나 보고자 저는 지도를 보며 이곳저곳 상상의 여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적지가 없이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것은 몹시도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난간 위에 앉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참새의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목적지에 대해 정보를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주면서 '넌 그저 나랑 가기만 하면 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여행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우리들은 그 '어디론가'를 보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는 여정이기에 채워진 행복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세상은 막연하기만 한 불분명한 목적지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떠나는 우리를 해매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초차도 알 수 없도록 현혹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은 그것을 맞은 자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디론가' 같은 천국을 향해 가게 합니다. 때론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고 완벽한 준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서 계절을 잊은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계절과 상관없이 꽃을 피워내는 위대한 생명력입니다. 결국에는 따뜻한 태양 빛을 보게 하시고 차가운 눈을 물을 삼아 우리를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솟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모든 베델 성도님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쁨과 흥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의 이 여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어디론가'가 아닌 희망의 '어디론가'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날을 찬양합니다.

Even if it's not an isolation era like today, everyone may have dreamt of 'wanting to go somewhere'. If you were given an opportunity and situation to go somewhere somehow, where would you go? Those that have thought about this will probably not hesitate to pack up and run out with excitement and joy. However, there will be those who cannot respond to the opportunity thinking about 'somewhere'. We make plans to implement 'wanting to go somewhere' when a long weekend comes around. With this week's long weekend, although we cannot really go anywhere, I imagine going to places in my mind while looking at a map. Then I realize how difficult it is to find 'somewhere' without a destination in mind. It was like an image of a sparrow sitting on a railing looking here and there searching for a place go.

I am sure you know how much planning and preparation it takes to travel. If there is someone who studies the destination, makes all necessary preparation and tells you 'all you have to do is just come with me', I would be delighted just thinking about it. This is probably true for all of us who are on a journey called life. Thankfully we, who have accepted Christ as our Lord, are people going on a happy journey to 'somewhere' that has been revealed and prepared for us. Our joy is not easily taken away because we are going on a journey holding on to Jesus Christ who is the way. This is the power of gospel.

The world without gospel is vague and unclear. Even though it is beautifully packaged, it makes us lose our way. It confuses us in which way to go. On the contrary, those that have tasted gospel are heaven bound, 'somewhere' that we cannot fully know. Sometimes we travel through fog, and overcome with wind and rain, but we will never lose our way. No matter the situation, Jesus is with us and leading us with His sure and perfect preparation. There is a saying that a flower forgets the season and blooms in snow. Sustaining a life that Jesus gave us is like flower that blooms regardless of season. Ultimately, He will cause us to see the warm sun light and melt the cold snow to let us soar, bringing us to hope and joy. Therefore, beloved Bethel members, believe in the promise. May you enjoy this journey with Jesus in excitement and joy. Instead of despair of 'somewhere', let us expect hope of 'somewhere' and praise this Lord's Day.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1 편

진동 변동 요지부동

(히 12:25-29)

1.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본문은 다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25절에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요? (참고/ 히 2:1, 히 10:29, 민 14:29-30)
3. 하늘과 땅을 진동시킴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26-27절) 그리고 나의 경험 속에 '진동(shaken)'된 일도 나눠 봅시다.
4. 다음 성경구절들을 찾아 읽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봅시다.(29절)
 - 신 4:24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_____ 이시요
 - 학개 2:6 ...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_____ 시킬 것이요
 - 사 13:13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_____ 시키며 땅을 _____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 뱌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_____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 계 16:19-20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_____
 - 계 21:1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_____ 바다도 다시 _____
5. 하나님의 경고가 협박이 아닌, 자상한 아버지의 설득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8절, 참고/ 마 27:51)

적용하기



■ 적용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어둠 속에서

신년인사
실행위원회

숨겨 놓으신 주의 증거들



2021년 건물관리 사역과 실행위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와 같이 묵묵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교회를 내 집 대하듯 최선을 다해 가꾸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사역하시며 교제 나누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내 집 사랑하듯 애끼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경 집사(건물관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베델 동산을 갖지 못한 아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확실히 알기에 팬데믹 이후를 기대합니다.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로이 교제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김백열 장로(베델 동산)



제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태도의 믿음인지 점검해보는 2021년입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도 더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부족한 저를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베델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목회진을 도와 기도하고 헌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베델의 성전에서 반갑게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김범진 집사(선교/바자 사역)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며 힘차게 올해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정성 담긴 귀중한 헌금이 교회의 여러 사역에 때맞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재정이 소모되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평안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병인 집사(재정)



실행위원 서기로, 셀 모임 사역 팀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의 부족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빛진 마음으로 베델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사역하겠습니다. 헌신하시는 목회진과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소중히 헤아려 배려하고 품어주는 목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병주 장로(셀사역)



현장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2021년에 실행위원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교회가 오픈되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면 벌써 마음이 벅차옵니다. 믿음의 태도를 바로 하고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주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모든 베델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응진 집사(주일 예배)



올 한 해, 베델 모든 성도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안에서 교제하던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실행위원으로 한해를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 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 집사(오케스트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숲을 헤치고 나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성되게 섬기고,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베델의 뜻을 밝으며 성도님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양무리를 돌보시는 베델의 모든 목회진께 성령충만하심과 강건하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원규 집사(오부 예배)



신년인사
실행위원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소망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전개될 주님의 크신 비

전과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멕시코 선교사역을 기도로써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호전되어 하루빨리 사역이 재개되길 바라며 멕시코 박영완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동역하시는 루이스 목사님, 가디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종민 장로(멕시코 일일선교)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

시길 소망합니다.

변준호 장로(카페 사역)



베델 가족 여러분, 이제껏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 의전 사역을 맡게 된 2021년,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맡겨진 책무를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베델가족이 함께 베델의 뜰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감사 넘치시는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윤영재 권사(목회 의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2021년에도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베델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제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함

께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10절)

이선갑 장로(식당 사역)



올 한 해 베델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마침내 주님의 뜻

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서로 품어주며, 그 풍성함으로 공동체와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낙현 장로(방역 사역)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

시는 베델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왕동원 장로(성례 사역)

너무나 부족하지만, 올해 한 번 더 베델 실행위



원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1년, 참 특별한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온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며, 더 높은 믿음의 고도를 향해 힘차게 비

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베델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정광묵 집사(엘새 사역)



하나님이 주신 베델 성도님들의 다양한 재능이 선교지에서 잘 사용되도록 연결하는 BAM Connection 사역은 작년에 새로 시작되어, 이번 팬데믹처럼 선교지 직접 방

문이 어려운 상황을 위한 대안적 선교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사회에서 단기선교를 떠날 시간조차 없는 성도님들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열어 드리게 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나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떼어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허용진 장로(BAM 사역)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던 2020년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매일 아침 담임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실행위원 총무로 교회 살림을 맡아 헌신하며 작년에 이어 주자됨도 섬기면서 분주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성도님이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대원 장로(실행위원 총무)

베델 사역

프로젝트 아이엠



프로젝트 아이엠을 마치며...

2020년도 한 해를 온라인으로 예배와 셀모임으로 보낸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셀모임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얼굴을 마주 보며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셀 식구들이 나눔에 목말라 할 때 즈음 가문의 단비처럼 '우리 셀이 뭉쳤다'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단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셀문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더욱이 예배의 자리인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헤어지는 시간까지 못다 한 이야기와 서로의 어려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셀식구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닌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물처럼 우리 셀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동행해주시는 셀모임에서 믿음의 셀식구와 언제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박병임 집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수요예배 프로젝트를 섬기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데 혼자서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파트에 일당백을 채우고도 남을 섬김이들을 보내주셔서 차고 넘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섬기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박정화 집사

영상의 교재만이 허락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 아이엠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방송에 관련된 어떠한 재능도 있지 않았던 터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식 준비로 고생하는 스태프들을 섬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하지 못할 일들을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예전처럼 더 많은 분과 함께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백호진 집사

교회 봉사 경험도 많지 않은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런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제 생각은 비루했고, 편협했음을 프로젝트 아이엠을 통해 배웠습니다. 화면 뒤에서의 바지런함과 묵묵함은 녹록지 않은 시간을 알차게 메꾸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수족만 잠시 내어드린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서로 격려하고, 힘들었지만 매 순간 함께 웃었던 프로젝트 아이엠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수요일에 베델의 소식으로 채울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깊이 감사와 영광의 마음 올려 드립니다.

이자영 집사

우리 베델교회는 예배, 말씀 선포와 성도의 교제가 중단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목회진과 미디어 사역자들의 지혜를 모아 온라인 영상프로그램 '프로젝트 아이엠'을 탄생시켰습니다. 재미와 웃음을 준 '주보남', 코로나 숲을 뚫는 말씀 선포 '나는 선지자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우리 셀이 뭉쳤다' 등 각 코너 속에서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보여준

출연진과 특별히 영상 제작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숨은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정희 간사

프로젝트 아이엠 우리셀이 뭉쳤다는 시청하면서 다들 너무 재미있게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셀도 참석하며 그것도 제가 놀랍게 요리사로... 와우!!! 촬영 날짜가 잡혔고 모여서 메뉴를 결정하고 연습하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국에 온 저에게 한국말로 요리 설명을 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셀식구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고,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5:30에 모여서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는데 벌써 10시! ... 셀식구의 응원이 감사했지만 걱정하는 얼굴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시키신 일이시니 잘 도와주세요.

요리 설명을 잊지 않으려고 태블릿을 보려는데 외워서 하라는 요청에 더 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랍보와 슈퍼맨이란 별명까지, 오! 주님... 그러나 제 입에서는 "네! 해보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촬영은 정신없이 두시간이 지나갔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셀식구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고 위로가 되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재료들에 하나하나(14가지) 쪽지를 붙여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신 셀식구께 너무 감사하며 같이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베델방주 1셀이 한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장재혁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워십: 김성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심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심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심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백동휘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이정희, 장석영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당신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2021 봄 셀목자 수양회

사랑하는 셀목자, 초원지기 여러분! 온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힘든 시기에도 셀식구들과 함께 신앙의 트랙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셀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불드심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셀사역의 고도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양회는 각자 열심히 셀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장차 다가올 그리고 이미 시작된 새로운 일상(New Normal)의 시대를 믿음으로 뚫고 가는 셀을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목자님들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봄 셀목자 수양회는 온라인이 아닌, 교회 본당에서 만나게 되어서 더욱 설레며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고, 오랜만에 본당에서 서로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로 나아갈 이 귀한 자리에 셀목자 부부와 초원지기 부부 모두를 초대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Immanuel)을 선포하며, 2021년 셀사역의 고도를 높여 함께 비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 일시: 2월 20일(토) 오전 9시-11시
- ▶ 장소: 교회 본당
- ▶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박경철 목사 (949)774-9557

시간	프로그램
09:00-09:10	찬양
09:10-09:13	기도
09:13-09:43	Talk show
09:43-10:05	강의
10:05-10:10	기도
10:10-10:40	미니 콘서트
10:40-10:55	신임목자 임명, 시상식, 목자 선서
10:55-11:00	축도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온라인, 0부 현장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숫자 내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실외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checkin.bkc.org)

① **현장예배: 토요 0부 예배(온 가족 예배), 매주 토요일 5시**

② **현장예배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해주세요!**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 °C/ 99.5 °F 이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는 분
 - 위 조건에 있는 분의 동거가족인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 **수요특별기획: 선교다큐 "불(Fire)"** 수요선교다큐시리즈 "불(Fire)"에서는 설교자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터키와 이슬람권 6개국(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아르메니아) 선교현장의 복음전도자, 교회개척자, 현지 교회목회자, 선교사들의 간증과 사역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불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선교다큐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3편이 방영됩니다.

① **설교: 롬 15:22-24 복음이 막혔더니 (정승락 목사)**

② **다큐 3편: 매이지 않는 복음의 불(인터넷 온라인 사역)**

시청방법: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카톡채널/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선교 보안 관계로 두 차례 실시간으로만 방영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54차 전도폭발 개강** "전도의 태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주제로 54차 전도폭발이 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개강 예배는 2월 16일(화) 저녁 7시에 들려드립니다.

훈련 일정: 2월 16일-6월 1일(총 14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베델 BAM 훈련 모집** 베델 BAM 훈련은 비즈니스 문화와 활동으로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학기는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되며, 팬데믹으로 인해 12주 동안 진도에 맞춰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정해진 시간에 Zoom으로 소그룹 모임 활동을 갖습니다. 훈련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온라인 선교 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 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 웹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과달라하라 일정/문의: 2월 14일(주일)-4월 17일(토), 박지학 집사 (217)390-4107

베트남 일정/문의: 2월 21일(주일)-5월 1일(토), 정재홍 집사 (248)202-0777

◆ **셀목자 수양회** 사랑하는 베델교회 셀목자님들을 2021 봄학기 셀목자 수양회로 초대합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신 셀목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셀 사역의 고도를 높여라' 라는 주제로 새로운 한 해의 셀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각 목장별로 배포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해 주셔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일시: 2월 20일(토) 오전 9시-11시

장소: 교회 본당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신임 셀목자 훈련** 상반기 신임 셀목자 훈련이 4주 동안 있습니다. 셀목자로 섬겨주실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3월 7일(주일)-28일(주일) (4주-매 주일) 오후 2시-3시

교육 방법: 온라인 Zoom으로 진행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한국학교 봄학기 성인반(온라인) 모집** 베델한국학교가 성인을 위한 봄학기 한국어 반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베델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강의 기간: 3월 6일-5월 15일(10주 과정)

강의: 수요일(오후 7시-9시), 토요일(오후 1시 30분-3시 30분)

대상: 9학년 이상의 성인

등록 기간/등록비: 2월 1일(월)-3월 5일(금), \$190

문의: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아침영상 특별 이벤트**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엮는다.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러분의 정원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사진, 영상)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의 아침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

주제: 봄

모집기간: 2월 15일-2월 28일

참여 방법: 4K화질의 원본 파일 사진이나 8분 분량의 배경화면 동영상 파일을

bethel@bkc.org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카타콤기도회** 각 가정과 일터로 영적인 카타콤이 되게 하라. 온라인 중보기도회가 Zoom으로 모입니다.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Zoom 회의 ID: 935 9750 9413

◆ **위로해 주세요**

故 이은수 권사님(이성수 집사/이태옥 권사의 가족)께서 2월 11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haken,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 Cannot be shaken (Hebrews 12:25-29)

1. Share any rules your family has.
2. In today's text, a severe warning from God comes out again. What were the historical facts that those who rejected the warning in verse 25 could not avoid? (Ref/ Hebrews 2:1, 10:29, Numbers 14:29-30)
3. What is God trying to reveal by shak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Vv. 26-27) Share what has been "shaken" in your experience.
4.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think about who God is. (V 29)
 - Deut. 4:24 The LORD your God is _____.
 - Haggai 2:6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_____ the heavens and earth, the oceans, and the dry land.
 - Isaiah 13:13 Therefore I will make the heavens _____; and the earth from its will _____ from its place at the wrath of the Lord Almighty, in the day of his burning anger.
 - 2 Peter 3:10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_____,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done in it will be laid bare.
 - Revelation 16:19-20 ...The cities of the nations collapsed. God remembered Babylon the Great and gave her the cup filled with the wine of the fury of his wrath. Every island fled away, and the mountains _____.
 - Revelation 21:1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_____, and _____ no longer any sea.
5. Why does God's warning sound like a father's gentle persuasion rather than a threat? (V 28, Ref/ Matt. 27:51)

Apply to Life

